

시나리오

S#1 학교 (풋살장 / 2022.10.07.)

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빠른 속도로 공이 굴러간다.
누군가의 발에 의해 힘차게 차여진 공이 공중에 뜬다.

‘퍽-’

주변 친구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오고 누군가 잔디 위로 넘어진다.

(블랙에 빠 소리)

S#2 야외 (골목)

바깥으로 나온 정우의 손목에는 위치가 차여져 있다.
고요한 골목에서 시끄러운 거리로 나가기 직전 정우는 헤드셋을 착용한다.

S#3 야외 (거리)

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려 깜짝 놀란 정우
어깨에 올려진 손의 주인은 대성
대성은 정우와 눈을 맞추며 큰 목소리로 말한다.

대성 | 학교 가는 거지? 같이 가자.

하지만 정우는 대성의 손을 쳐 내고 혼자 앞으로 걸어 나가버린다.

S#4 학교 (교실)

공을 들고 정우의 반을 찾아온 대성

대성 | 정우, 풋살하자

정우는 대성이 들고 있는 공을 보고서 **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낀다.**
눈을 꼭 감았다 뜬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한다.

정우 | 안 해. 너나 해.

S#1 학교 (풋살장)

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공을 차고 있는 남학생들과
벤치에 앉아 수다를 떠는 듯한 여학생들.
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정우의 눈에 남학생들 사이에서 공을 넣고 웃으며 뛰는
대성이 들어온다.

한동안 정우의 눈은 대성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다.

그러다 눈이 마주친 두 사람.
대성은 정우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정우는 무시하고 가버린다.
그 모습에 생각이 많아지는, 이제는 지쳐가는 대성

엑스트라A | 뭘해, 빨리 와.
대성 | 어? 어

S#3 야외 (거리)

앞으로 먼저 걸어나가는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걷는 대성
한참을 생각하다 휴대폰을 들고 정우에게 문자를 보낸다.

정우의 손목에 있던 위치에서 진동이 울린다.
진동을 느끼고 휴대폰을 확인하는 정우

‘나한테 화난 거 있냐’

문자를 보고서 걷다 멈춰선 정우
이때 주변이 점점 시끄러워 진다. 하지만 아무런 미동이 없는 정우
정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온다.

대성 | 앞에 보라고 서정우!!!!

대성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다 정우의 팔을 잡는 순간
킥보드가 정우의 옆을 빠르게 지나간다.

킥보드 넘어지는 소리가 나고서야 상황파악이 된 정우는 대성을 바라본다.
그런 정우를 보던 대성은 넘어진 시민에게 다가간다.

대성 | 괜찮으세요?

그 모습을 보던 정우는 또 다시 빠르게 **심장이 뛰기 시작**하고 뒷걸음 치며 도망가듯 가 버린다.
대성은 그런 정우를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.

S#5 정우 집 (조명 사용)

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향한 정우
세면대 물을 틀어 투박하게 얼굴을 씻어낸다.

격한 세수로 옷이 젖어버린 정우는 온 몸에 힘이 풀린 채로 무릎을 가져와 쫓그려 앉고
두 손으로 귀를 툭툭 치기 시작하다 점점 세계 쳐 낸다.
그렇게 정우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계속된다.

S#5 대성의 집

정우에게 보낸 문자 화면을 보며 책상에 앉아있는 대성
과거 정우와의 일화를 떠올린다.

S#5 정우의 집 > 과거회상 (2022.10.09.)

정우 집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대성

대성 | 서정우!! 서정우!!!! 문 열어 새끼야!!!!

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망설이고 있는 정우의 귀에
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열게 들려온다.

대성 | 서정우!!!!!!!

서서히 열린 문과 그 앞에 서 있는 정우의 얼굴을 마주한 대성

대성 | 미친새끼야. 너 왜,

정우의 시선은 대성의 입으로 향해 있으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.
그 모습을 뵈히 보면 대성은 믿지 못한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젓는다.

S#5 대성의 집

회상을 끝낸 대성은 크게 한숨을 내쉰다.
책상에 놓여진 수화책을 뵈히 바라보며 책상 위로 손을 두드린다.

'탁- 탁- 탁-'

생각을 끝낸 대성은 책을 펼쳐 본다.

대성 | (손을 꿈지락 거리며) 이게 ..그... 이렇게가 나....

S#5 정우의 집

지쳐 누워있는 정우와 손목에 차여진 위치에서 진동이 울린다.

S#6 공원 (밤)

대성이 정우에게 책을 건넨다. 건네 받은 책이 수화책임을 알게 된 정우는 대성에게 화를 낸다.

정우 | 적당히 해. 야 너는, 너는 내가 이렇게 된 게 그냥 우습지.

대성 | ..뭐?

정우 | 나 귀 먹었다고 동네방네 소문 내냐? 적당히 떠들어. 내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
공 차고, 웃고 그냥 다 재밌지? 니가 날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딴 식으로 하필 지금

불러내지도 않았을 거라고.

뒤로 돌아선 정우는 대성에게 전해받은 책을 쓰레기통에 던지듯 버리고서야 떠나버린다.

S#3 야외 (거리)

헤드셋을 착용한 채 등교하고 있는 정우와 뒤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잠시 정우를 쳐다보던 대성은 정우의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버린다. 정우 역시 이를 인지한다.

S#4 학교 (교실)

교실 안에서 책만 바라보고 있는 정우와 교실 밖에서 한 손에 공을 안은 채 지나가는 대성

S#3 야외 (거리)

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대성의 뒤에서 홀로 조용히 걷는 정우의 모습이 대비된다.
그때 정우의 위치에 긴 진동이 울린다. 휴대폰을 확인하니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이다.
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으려다 멈칫하는 정우의 손이지만 누군가 정우의 폰을 가져가 전화를 받는다.

전화를 받은 건 대성

대성 | 네 어머니 저 대성이예요~ 아... (정우를 슬쩍 쳐다보며) 네 그럼요. 들어가세요!

휴대폰을 돌려주는 대성에게 정우가 말한다.

정우 | 왜 니 맘대로,

대성 | 어머니한테 연락 좀 드려. 아직도 말씀 안드렸냐.

정우 | (앞으로 걸어나가며) 신경 꺼.

대성 | 야. (정우를 향해 몸을 돌려)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너 스스로나 챙겨. 그만 도망치라고.

벌써 2년이나 지났잖아. 그리고 미안하다.

대성은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정우에게서 멀어진다.

S#블랙

사이 스토리 추가될 가능성 있음

S#4 학교 (사물함)

누군가(정우) 사물함을 향해 걸어간다.

사물함의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정우가 버렸던 수화책이 들어있다.